

2019 만화 해외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위탁용역 선정평가 종합심사평

- 올해 사업이 확대되고, B2C에 대한 과업이 새로 추가되었음. 그런데 B2C에 대한 기획과 적용에 있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에 그쳐 아쉬움이 있었음.
- 그럼에도 B2B의 강화, B2B와 B2C에 대해 적절한 균형과 차별화로 제안한 제안사의 아이디어와 의지에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됨.
- 우리 웹툰에 대한 홍보, 전시, 특히 차별화된 웹툰 홍보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확인함.